



대학의 미래 비전과 한국 고등교육의 현주소

제1회 서울총장포럼

25th March, 2015

중앙대학교 이용구 총장

Contents

- I. 글로벌 메가 트렌드 및 미래 대학
- II. 한국 고등교육의 현주소
- III. 정부 제안 사항

Contents

I. 글로벌 메가 트렌드 및 미래 대학

II. 한국 고등교육의 현주소

III. 정부 제안 사항

미래사회 트렌드 및 대학교육 전망(향후 10년~30년)

미래사회 트렌드

Keyword

대학교육의 미래전망

- IT·BT·NT·신소재 등 기술/학제간 융복합
- 정보보안 중요성 대두
-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의 완만한 진전
- **영역파괴와 융합의 시대 :
프로페셔널리즘**
- 에너지, 기후 관련 연구 필요성 증대



- 융복합 교육을 받은 창의인재 양성
- Interdisciplinary(학제간 연구) 활성화
- 중고등학교부터 학제간 융복합 교육 실시
('21년 문·이과 통합 수능 검토 중)
- 창조성, 능력, 감성 개발 위주의 교육

-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민족간
갈등심화 및 국제안보 불안 증대
- 비영리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증가
- 인구 1억 미만의 국가 언어 소멸
(30년 후 세계 공용어: 영어, 중국어)



- 글로벌 인재 육성 필요성 증가
- 해외 선진대학 글로벌 캠퍼스 확대
- 교육시장 개방 및 교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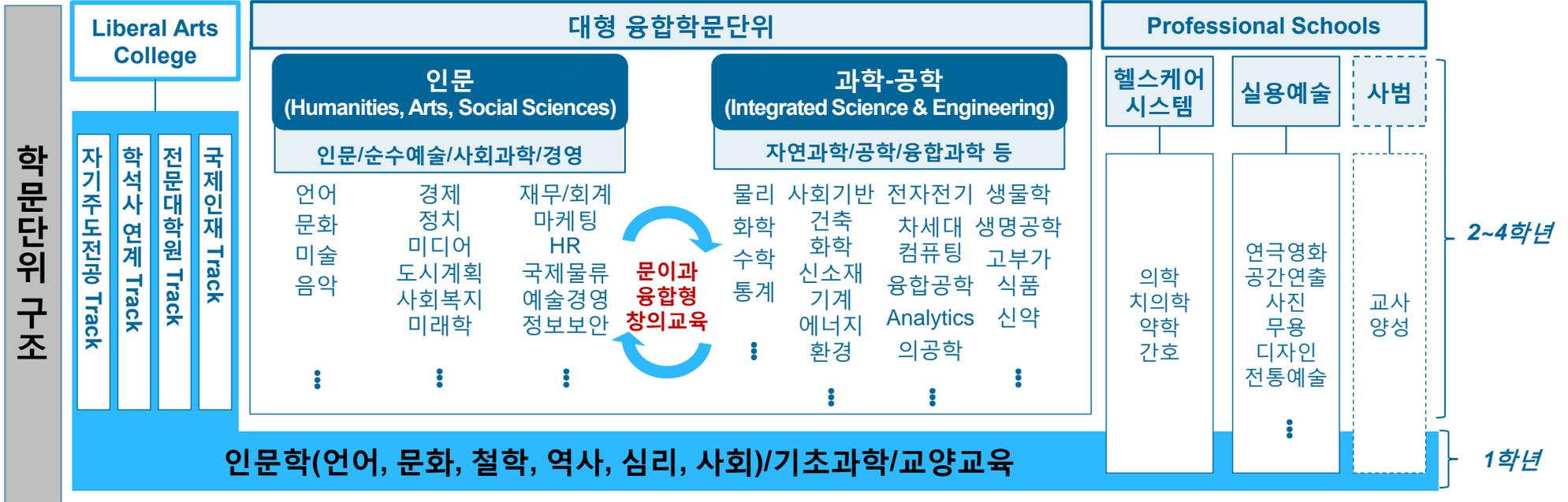
- **학위 위주 교육수요 → 실용적
능력 위주의 교육수요 증대**
- 웰빙/감성/복지경제 : 삶의 질 중시
- 고령화로 평생교육, 시니어산업 등의
중요성 대두



- 학습내용의 오픈소스화/무료화
- 노령층, 직장인에 대한 교육 수요 증가
- 학습내용의 사이버화/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기회 차별화

※ 참고문헌. “유엔 미래보고서 2025”박영숙 외 공저, 2011 /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
“미래 10년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우리의 나아갈 길”유명호 / “한국 대학교육의 미래방향과 과제”2012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
“Crisis on Campus : A Bold Plan for Reforming Our Colleges and Universities”Taylor, Mark C. 2010

세계대학은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 구조를 운영 중



- 주요특징**
- 1 Liberal Arts College**
 - 핵심 인문학/기초과학 및 필수 교양 교육을 통한 융합형 인재양성 토대 마련
 - 1학년 대상 Residential College
 - Track별 특성화 추진
 - 문이과 융합형 커리큘럼 제공
 - 2 대형 융합학문단위**
 - 학문단위 광역화를 통한 광범위한 융합교육 체제 구축
 -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한 문이과 통합 등 융합형 인재 양성
 - 대학원과 연계하여 전체 학문단위에 대한 일관성 추구 및 연구 성과 향상
 - 3 Professional Schools**
 - 의학/약학/간호대학 등 관련된 전문분야 학문단위 연계로 시너지 창출
 - 예술/체육대학을 순수예술과 실용예술로 양분 → 실용예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예술인 양성

NYU 사례 : College of Arts & Science 는 1~2학년 전공 탐색 후, 학생이 인문/사회과학/예술/자연과학/공학 분야의 66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NYU – College of Arts & Science

(66개 전공, 재학생 7,335명)

Africana Studies
American Studies
Art History
Cinema Studies
Classical Civilization and Hellenic Studies
Classics
Comparative Literature
Dramatic Literature
East Asian Studies
European and Mediterranean Studies
French
French and Linguistics
German and Linguistics
German Literature and Culture
Hebrew Language and Literature

Iberian Studies
Italian and Linguistics
Italian Studies
Jewish History and Civilization
Language and Mind
Latin American Studies

Anthropology
Anthropology and Classical Civilization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Art History and Classics
Asia/Pacific/American Studies

Biochemistry
Biology
Chemistry
Computer Science
Computer Science and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and Economics
Engineering
English
Environmental Studies
Global Public Health
Mathematics
Neural Science
Physics
Urban Design and Architecture Studies

2~4 학년

**미래인재에게 요구되는
「인성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에 역점
+ 학생의 전공선택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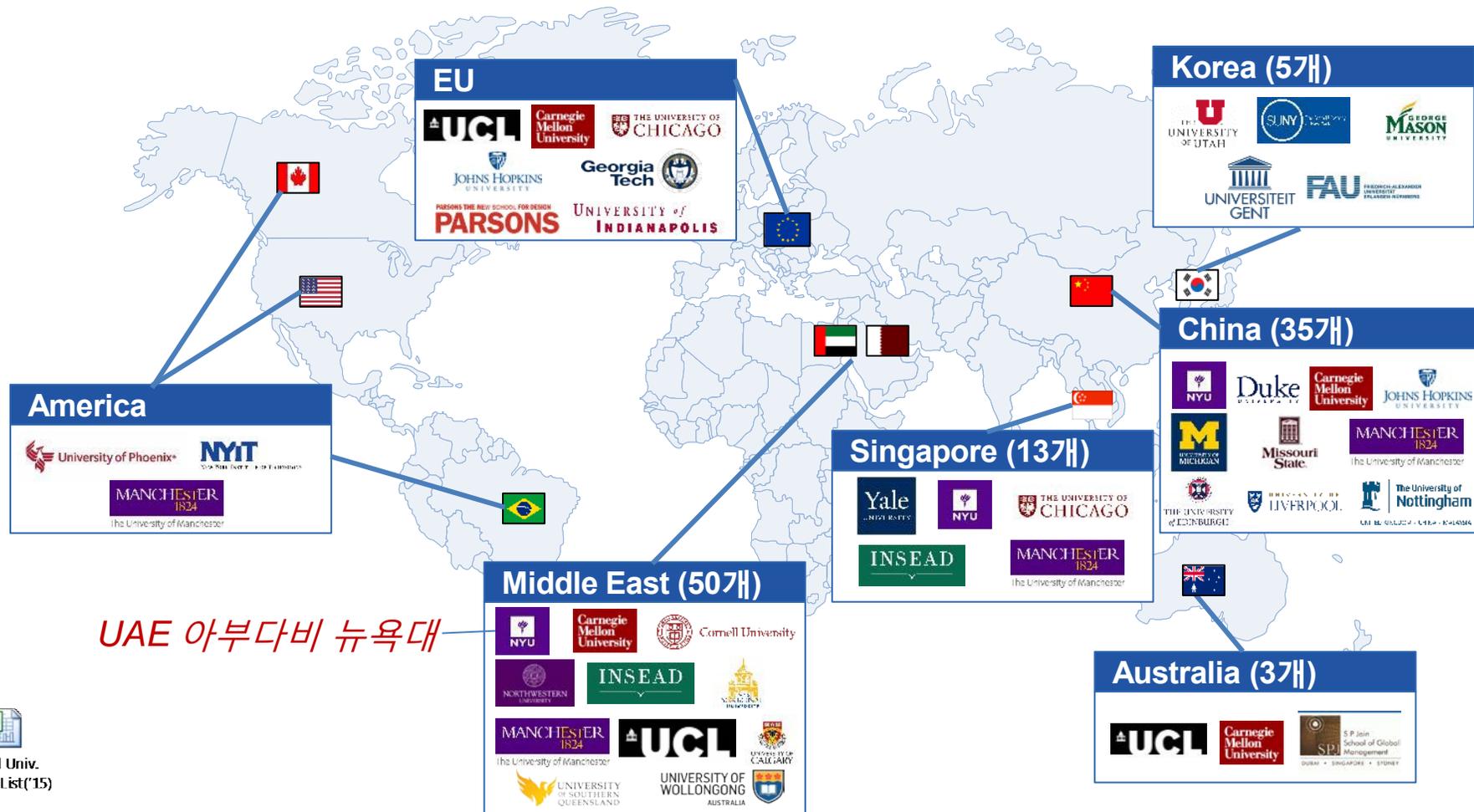
1~2학년

The Core Program	Expository Writing	[교과목 예시] : Writing the Essay, Texts and Ideas, Cultures and Contexts, Expressive Culture, Societies and the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 I & II, Quantitative Reasoning 등 → 토론중심, 25명 이하 소규모 수업
	Foundations of Contemporary Culture	
	Foundations of Scientific Inquiry	
	Foreign Language Study	

중국,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향후 특정 국가의 범위를 넘어 세계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대학이 다수 등장 할 것으로 예상함

세계 주요 대학의 글로벌 Branch 개설현황

Sel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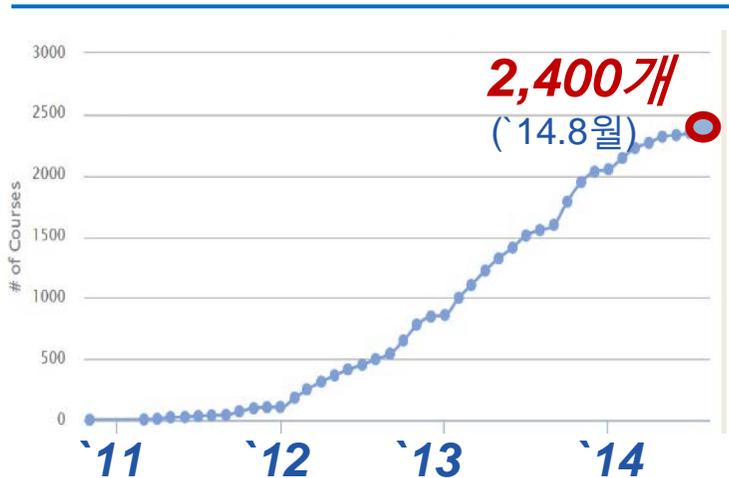
최근 다양한 MOOC 플랫폼들이 등장하며 급속히 성장했으며, 선진대학의 정규수업과 연계하는 등 기존의 전통적 대학교육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전망임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국경을 초월한 교육 콘텐츠 전쟁 시작”

- MIT Open Courseware
 - 1,400개 강좌무료 제공
 - 월 140만명 수강

MOOC 제공 강좌 수¹⁾



[사례] Coursera



- 2012.4월 설립한 영리기관
- 114개 대학 등에서 839개 강좌 제공²⁾
- 190개국 2,200만명 수강생³⁾

미션

“ We provide Universal Access to the World’s Best Education ”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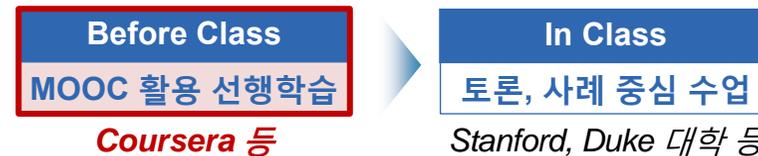
- Interactive 강의, 무료 교과서 등 학습지원 제공
- 자발적 TA(Teaching Assistant) 운영
- 수강생끼리 토론 포럼 운영(화상회의 방식 등)

평가

- 수업 중 Quiz 실시
- 과제 부여 → Peer Assessment

대학 강의 연계

- 일부 대학에선 Flipped Learning 으로 활용



UCLA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과 산학 협력 프로그램 및 온라인 과정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 최대 규모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음

“고등교육 소비자는 더 이상 20세 신입생 만이 아니다!”

UCLA - Center for Continuing Education



- 운영형태: 본교 부설 기관
- 설립: 1975년
- 시간: 주간, 주말, 야간, 온라인
- 과정: 4,000여개/수강인원: 15만명

UCLA 평생교육원



- 1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대상 언어 및 수료증 프로그램
- 2 전공 분야의 직장인 대상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 3 50세 이상인 퇴직자 대상 교양 프로그램 및 동호회 운영

사회적 수요 반영

▪ OLLI (Osher Lifelong Learning Institutes)

- 대상: 50세 이상 퇴직자 (1,000여명)
- 특징: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노인 계층의 needs를 충족시킴
- 프로그램: 예술, 철학, 문학 등의 과정 및 박물관투어, 영화 동호회 운영

산학 협력 프로그램

▪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대상 : 직장인, 일반인 등
- 총 104개의 수료증 과정 중 인턴십 과정 47개(경영, 부동산, 예술 분야 등)

온라인 과정 활성화

▪ 다양한 온라인 과정

- 22개 분야, 182개 과정
- 수료증 및 직무능력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체계적인 구조화로 접근성 높음

미래 대학은 능동적인 학습자의 수요에 의해 새로운 모습의 학습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대학 울타리 안팎의 다양한 요소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함

전통적 대학의
패러다임

미래 대학의
패러다임

조직 형태

가르치는 조직

학습공동체 (학생+교수)

학습 주도자

교수 중심

학생 중심

학생

수동적인 학생

능동적인 학생

학습형태

정형화된 학습

현장중심 · 맞춤형 학습

상호작용

혼자만의 학습

상호작용 · 협력학습

시간개념

선형적 · 순차적

다차원적 · 자율적

공간 개념

강의실

온라인 + 강의실

미래대학은 학생 스스로가 대학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수업 콘텐츠 및 학습 방식을 선택하고 만족도에 따라 유연한 학사구조/커리큘럼을 가져갈 것임

Transformation 1: Paradigm of Education



University-driven

대학 순위, 캠퍼스 방문 경험,
마케팅 자료, 가족/친구 등 주변인의 조언
고등학교 교사 또는 전문 카운셀러 등
제한적인 정보를 통해 대학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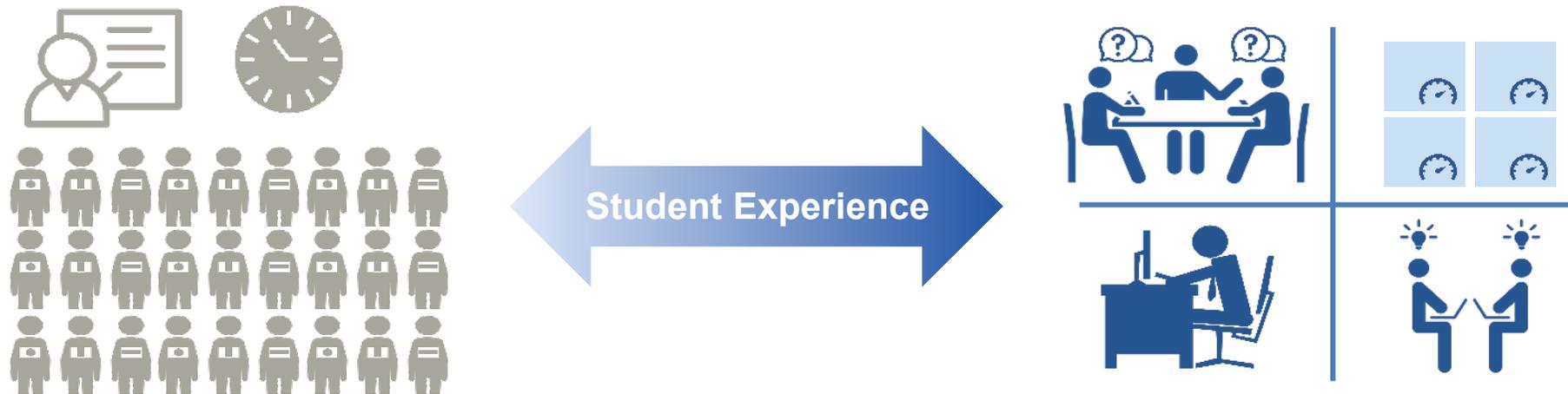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지만 콘텐츠/방식에 있어서
학생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학교 또는 교수 중심 시스템

Student-driven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학습을 원하는 콘텐츠 및 학습 방식을 선택
하고 학생 만족도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구조 및 커리큘럼이 조정되는
학생중심 시스템

미래대학은 “교실” 범위를 벗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지식과 학생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 것임

Transformation 2: Student-Experience



One Size Fits All

대학의 주요 역할은 정해진 수업시간, 제한된 강의실에서 행해지는 수업을 통한 지식 전달로 한정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학습방법으로 전달

“Just Right” Education

지식의 단순 전달이 아닌 멘토링, 연구, 토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솔루션을 제공 & Skill 전수

디지털 플랫폼 등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최신의 지식을 전달

미래대학은 한 대학 내의 교육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인증한 학생 개개인의 Credential을 인정하는 기관으로 변모할 것임

Transformation 3: Life-Long Education



Four-year College Degree

한 대학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학사학위수여 (학사학위 = 커리어를 위한 기본 트레이닝)

“Stackable Credentials”

단순한 학위 수여 기관에서 벗어나 Professional Life 를 위한 평생학습 기관

학생 별 Education Record(학위, 인증 등)에 따라 개개인의 정확한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학위 수여

Contents

I. 글로벌 메가 트렌드 및 미래 대학

II. 한국 고등교육의 현주소

III. 정부 제안 사항

IMD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대한민국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이수자는 60% 이상으로 세계 2위 수준이나 대학 교육의 질적 경쟁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순위	국가	결과 (%)
1	싱가포르	72.0
2	대한민국	64.0
3	대만	61.0
4	일본	59.0
5	캐나다	57.0
6	러시아	56.0
7	카자흐스탄	50.0
8	리투아니아	48.4
9	룩셈부르크	47.0
9	노르웨이	47.0
9	영국(UK)	47.0
12	뉴질랜드	46.0
13	홍콩	45.2
14	호주	45.0
14	아일랜드	45.0
16	이스라엘	44.0
17	미국	43.0

⋮

“대학교육 사회 內 질적 경쟁력”

순위	국가	결과 (10점)
1	스위스	8.68
2	캐나다	8.19
3	핀란드	8.16
4	싱가포르	8.10
5	덴마크	7.73
6	독일	7.72
7	미국	7.64
8	아일랜드	7.61
8	이스라엘	7.61
9	네덜란드	7.53
11	벨기에	7.48
12	UAE	7.22
13	홍콩	6.99
14	말레이시아	6.90
15	호주	6.85

⋮

53	대한민국	4.34
-----------	-------------	-------------

vs.

시사점

“양적우세 대비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 2014년 IMD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대한민국은 26위 기록
- 최근 4년간('11~'14)고등교육 경쟁력 트렌드
 - 고등교육 이수율 60%대 상승 : 58%→63%→65%→64%
 - 대학교육 경쟁력 지속적 하락: 39위→42위→41위 →53위
- 2014년 고등교육 경쟁력 평가 결과 60개국 中
 - 고등교육 이수율 세계 2위 (64%)로 최고 수준
 -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력 53위(4.34/10)로 하위

한국 고등교육의 Risk Factors

1

정원감축 = 대학의 재정난

2

전공-취업간 연계시스템 낮음

3

대학의 연구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의 불일치

4

인성과 창의성 교육 미흡

5

학내 구성원의 개혁 공감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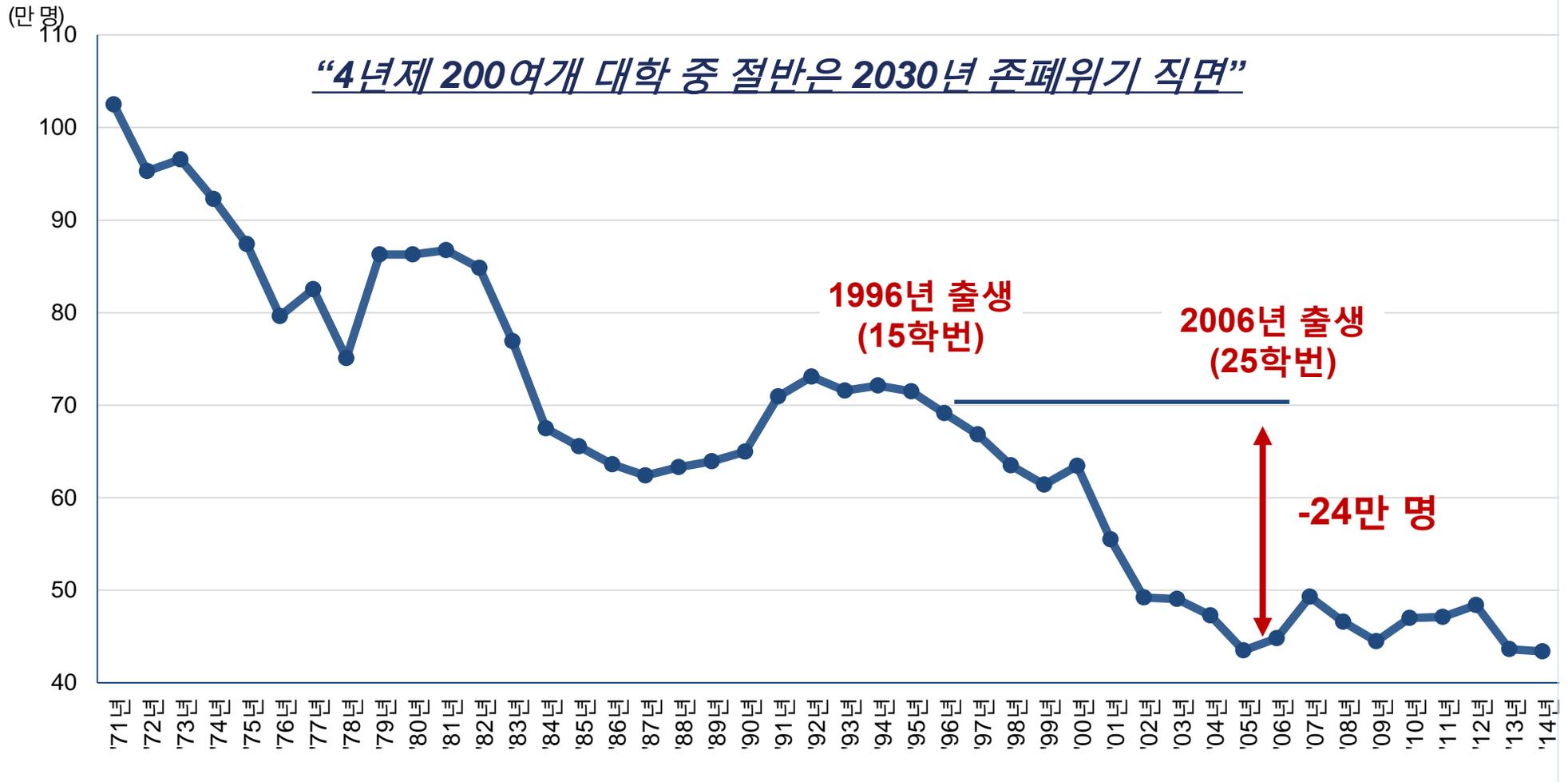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교육 수요자 구조, 학사구조 유연성, 국제화, 사회 및 정부정책 의 4가지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함



2025년 대학 입학하게 되는 2006년 출생아 수는 1996년 대비 **24만 명 감소**,
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교육기관도 생존경쟁이 불가피함**

연도별 신생아 수 추이 (1971~2014)

“4년제 200여개 대학 중 절반은 2030년 존폐위기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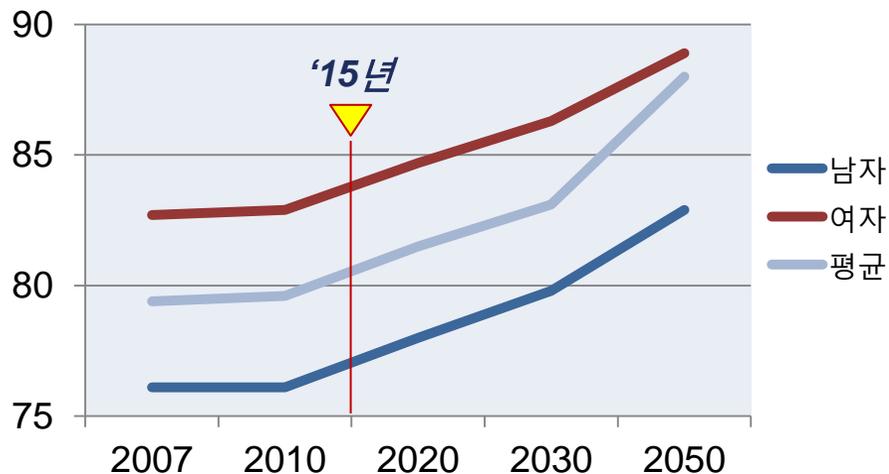


60세 이후에도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지속 하는 등 일생 동안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기간 연장되어, 평생교육 및 재취업교육 등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자 구조 변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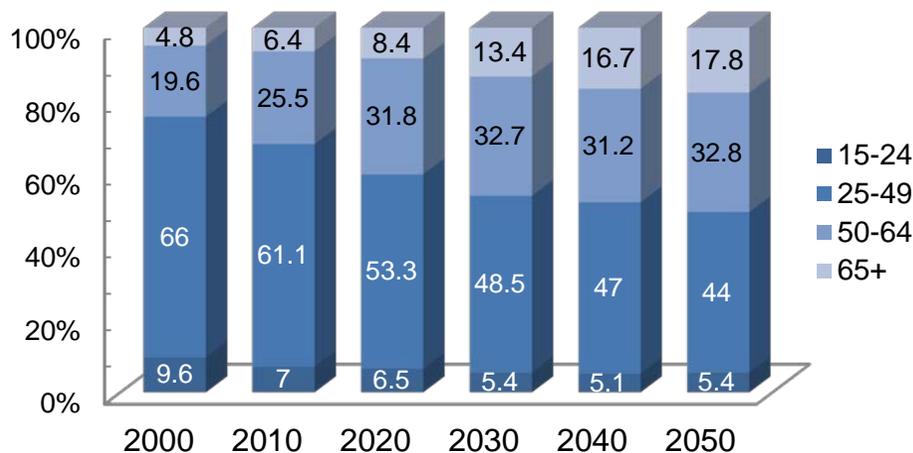
한국인의 평균수명 및 고용시장 고령화

(단위:세)

평균수명 ('15년 약 81세)



한국 고용시장 고령화 전망 : 2000~2050



-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정원감축 심화와 학생 유치 경쟁 가속화
- 저출산 시대와 고령화 사회, 정규직 은퇴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 중·장년층 증가

2050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실버연령층과 직장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얼마나 될 것인가?
대학은 이러한 교육수요(예: 평생학습 혹은 재교육)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내 사립대 평균 학과 수는 61개로 ‘잡화점’ 식 학과 포트폴리오를 운영 중이며, 이는 경직된 학사구조의 가장 큰 원인임

東亞日報
2014년 03월 03일
01면 (종합)

사립대 학과 수 61개 ‘잡화점’... 특성화에 역주행

(평균)

美 48-英 46개 비해 너무 ‘비대’
“학과 구조조정으로 정원 감축을”

여기 두 대학이 있다. 하나는 18개 단과대(100개 학과)에 재학생은 2만3000여 명, 다른 한 곳은 단과대 5개(38개 학과)에 학부 재학생은 6700여 명(지난해 기준). 전자는 국내 지방의 한 사립대. 후자는 미국의 하버드대다. 국내의 이 사립대는 교육부의 정원감축 계획에 대비해 반년 전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 학과 통폐합에 나섰지만 교수진 등 학내 반발로 제대로 실행조차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한양대 배영찬 교수팀과 국내외 대학들의 학과 편성 및 학사과정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사립대가 외국 명문대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립대

	한국	미국	영국
대학 수	38	33	33
평균 단과대 수	11.7	4.8	5.9

국가	평균 학과 수
한국	61.3
미국	48.1
영국	46.0

한국은 4년제 대학 중 종합대 성격을 지니고 정원이 1만 명이 넘는 학교. 미국, 영국은 지난해 QS 평가에서 400위 안에 포함된 종합대.

성해 대형 종합대로 키우는 한편 사립대는 강소형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교육 당국의 구상과 역주행하는 셈이다.

학과 편성도 문제로 나타났다. 국내 사립대의 건축학 신문방송학 교육학 관련학과 보유 비율은 외국 사립대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영어 관련학과 보유 비율에서도 국내 사립대는 94.7%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 영국 사립대(81.8%)보다 높았다. 반면 기초학문인 철학 물리학 화학 관련학과 보유 비율은 외국 사립대보다 낮았다.

중구난방으로 학과를 개설하다 보니 학생들은 학교 간판만 바라보게 되고 결국 전공은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기 일쑤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의 최근 3년(2011~2013년) 학과별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문방송학과와 의 경우 3년 동안 취업에 성공한 91명 가운데 전공 관련 취업자는 16명(17.6%)에 불과했다. 배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강도 높은 학과 통폐합 등을 통해 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조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중구난방으로 학과를 개설...
결국 전공은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

이러한 국내 대학의 경직된 학사 구조의 원인은 학과 이기주의이며, 유연한 학사구조를 바탕으로 미래 유망 학문단위를 신설하고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절실함

東亞日報

사립대 95%에 영어 관련학과...

● 학과 이기주의에 발목 잡힌 대학들

인문-사회과학-사범계열에 치중
수요보다 너무 많은 졸업생 배출
비인기학과 학생들 '전공 세탁'

정부 9년간 16만명 정원 감축 추진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만이 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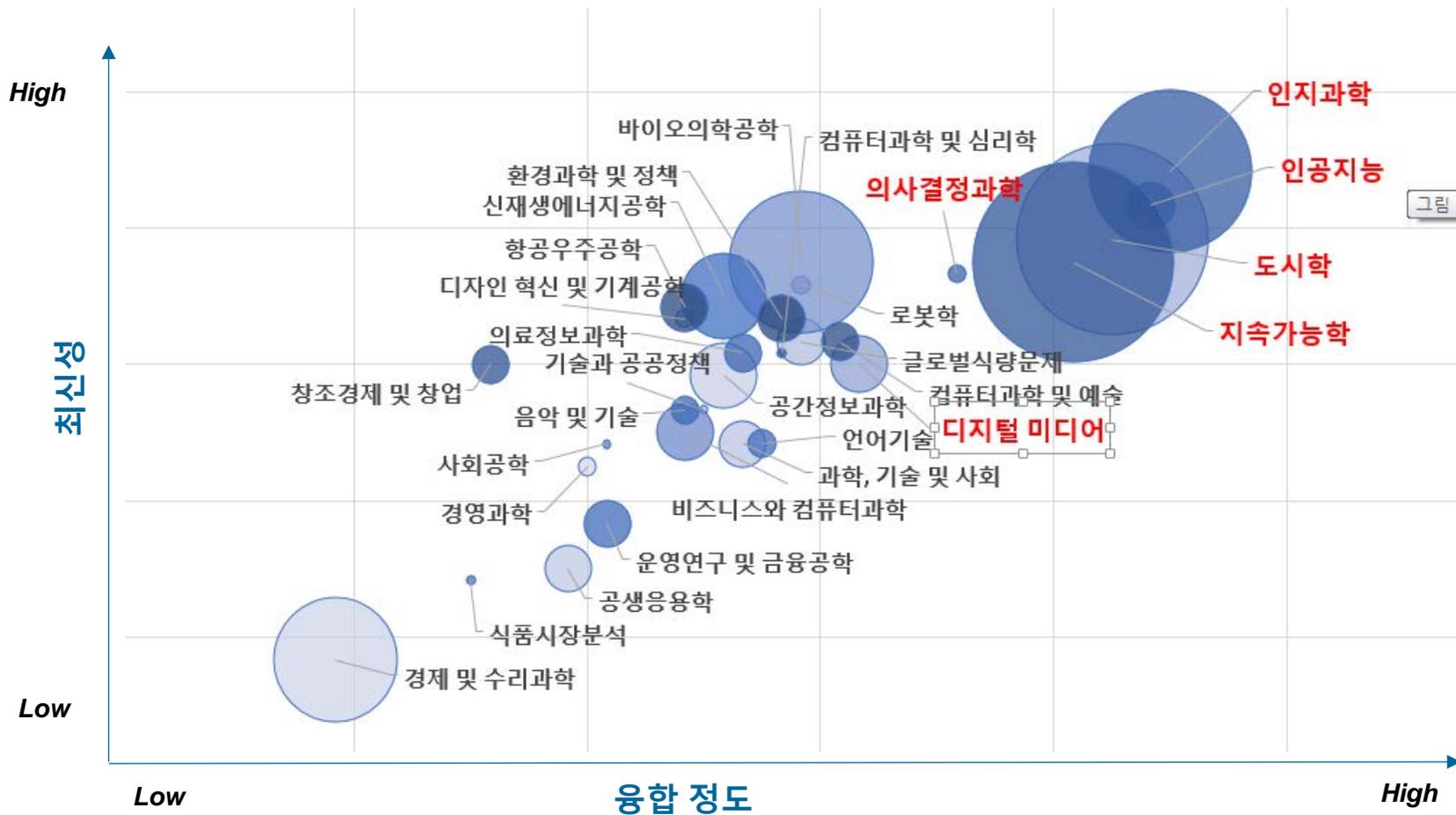
해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결국 학과 구조 조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기회에 대학마다 학과 통폐합 등 제대로 된 구조조정에 나서 정원을 감축하고, 현실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학과 구조조정이란 큰 틀에는 대학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역시 학과 이기주의다. 학과마다 “우리 학과만은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펼치다 보니 전체 학과 수가 줄기는커녕 외려 늘어나는 형편이다.

- 학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경직된 학사구조의 피해자는 '학생'
- 전공 변경을 위한 편입, 대학원 진학 증가
- 전공과 관계 없는 분야의 취업으로 대졸자에 대한 산업계의 불신

선진 대학들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인문-자연-공학 분야간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전공 등 미래유망 학문단위를 개설하고 있음

미래유망 학문분야 트렌드 (QS Ranking Top50)



MIT 인지과학, NYU 디지털 미디어 등 세계 우수 대학은 학제간 융복합을 통한 유망 학문단위를 개설하고 있음

「인문·사회 + 공학」 융합 사례



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s)

학문 개요

- 인간의 신경계 및 뇌에서 일어나는 언어, 감각, 사고, 인지 및 저장 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 **연관학문 : 심리학, 신경과학, 언어학, 인공지능생물학, 기계공학 등**

전공 개요

- School of Sciences 의 Department of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소속
- 학위 : B.S. (Bachelor of Science)
- 1986년 설립된 이후 연구소 추가 설립 등 연구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구성원: 교원 48명, 학부 및 대학원생 200명, 연구원 및 Post-doc 180명
- 커리큘럼 : 기초과학(6과목), 인문사회과학 기초 (8과목), 공학필수 (3과목) 등

졸업후 진로

- 주로 대학원 진학 (Medical, Law, Business 등 전문대학원 포함)

「예술 + 공학」 융합 사례



디지털 미디어
(Integrated Digital Media)

학문 개요

- 앱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게임 등 디지털 미디어 전반에 걸친 폭넓은 학문
- **연관학문 : 사진, 영화, 음악, 오디오기술, 실용 예술 등**

전공 개요

- 소속: Polytechnic School of Engineering 의 Department of Technology, Culture and Society
- 학위 : B.S. (Bachelor of Science)
- 커리큘럼 : Digital Media Core과목 (최소 42학점), 수학/과학/인문/사회과학 (60학점), 전공선택 (18학점)
 - Ideation and Prototyping, Creative Coding, Visual Foundation Studio, Dynamic Web Applications 등

졸업후 진로

- 게임개발자,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웹디자이너, 디지털 그래픽 디자이너 등

QS-ASIA 랭킹에 의하면 국내 주요대학들은 실질적인 국제화와 관련된 지표가 취약함

QS-ASIA 상위 20위권 內 국내대학 : 6개

국제화
관련 지표

Inbound Exchange	Outbound Exchange
<u>6개</u>	<u>5개</u>
 한양대  고려대  KAIST  연세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동국대

상위 20위
內
대학 현황

“지표상승 중심의 교환학생 위주”

International Faculty	International Students
<u>0개</u>	<u>2개</u>
	 한양대  서울대

“실질적인 국제화 여건 미비”

3. Globalization

해외 우수 대학이 한국 고등교육 시장에 진출 하였으나,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은 전무한 실정임

Sel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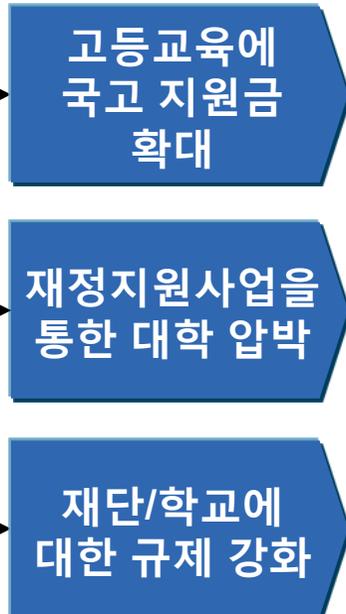
학교	위치	국가 (설립시기)	교육과정	본캠퍼스 파견시기	연간 학비	학생수
	송도	미국 (2014.09)	•커뮤니케이션 / 심리학 / 사회복지 / 공중보건	원하는 시기 1년	2,200만원	250명 (학부:200명 대학원:50명)
		벨기에 (2014.09)	• 분자생명공학 / 환경공학 / 식품공학	3학년2학기 (1 학기)	1,800만원	150명 (승인: 900명)
		미국 (2013.03)	•컴퓨터과학 / 기술경영 •기계공학	2학년	2,400만원	288명 (학부:164명 대학원: 64명)
		미국 (2014)	•경제학 / 경영학 / 국제학 • 갈등분석해결 (예정) • 컴퓨터게임디자인 (예정)	3학년	2,200만원	
 프레드리히 알렉산더 대학	부산	독일 (2011.03)	•화학생명공학 (석사 Only) -생물공정공학 -열역학 -환경공정공학 -화학반응공학 -기계공정공학 -유체역학	N/A	1,200만원	200명

사회적으로 대학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여 대학의 재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

사회적 요구

‘반값 등록금’ 실현

- 등록금이 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음
- 국내 사립대는 **재정의 약 70%** 를 등록금으로 충당 (미국사립대 약 30%)
- '13년 전국 사립대 적립금 10조원 돌파
- ➔ 등록금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압박 심화



정부의 정책 변화

- **재정(6.8조원) 및 장학금(1.5조원) 투입 계획**
: 대학 차원의 등록금 인하 압박
- **고등교육 재정투자 증대 추진**
: '17년까지 OECD 평균인 GDP의 1% 수준으로 증대

- **대학 구조개혁 추진**
: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 반영
- **등록금 인하**
: 등록금 인상시 장학금/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

- **사립대, 국공립대 구조개혁 확대 (정원감축, 통폐합 등)**
- **국공립 및 사립대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
: 대학의 부당지출, 적립금, 전입금 등 대상(감사원, 교과부 합동)

정부 정책 및 규제에 대한 대응책 강구

정부정책 공동 대응, 국공립/사립대학 역할 재정립, 교육원가 정립을 통한 적정 등록금 산출 등

수익사업 확대를 통한 대학 재정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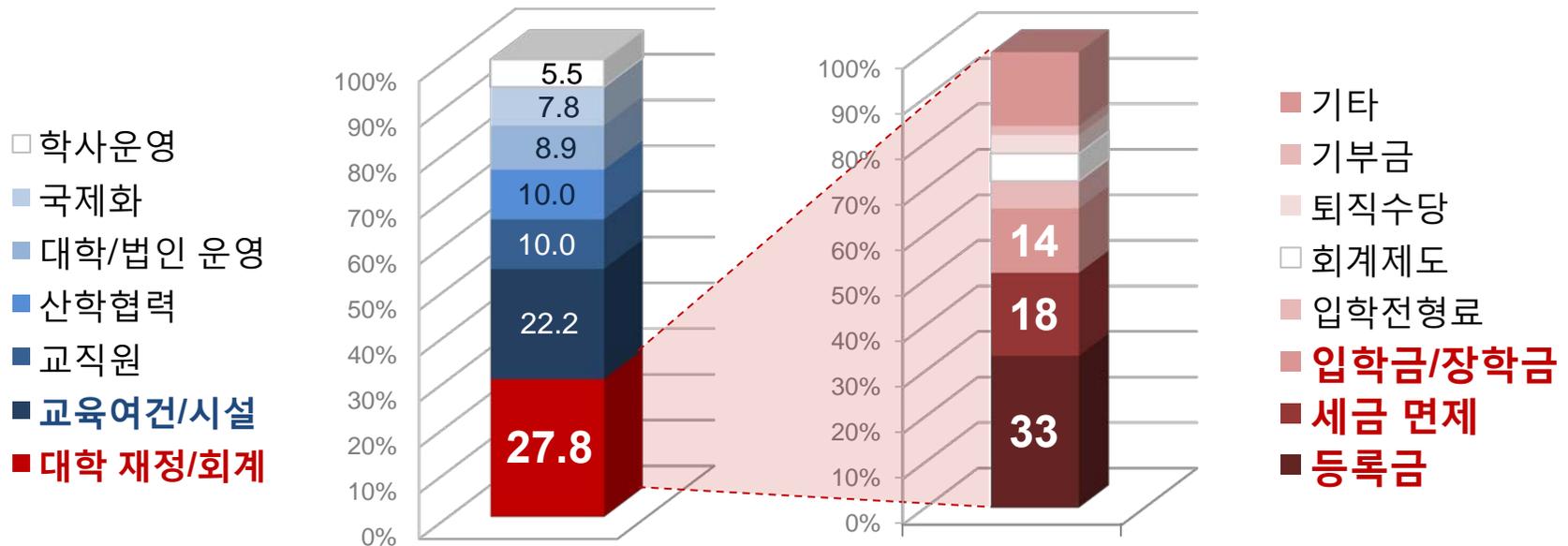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 여건 조성, 예·결산 자율성 확보, 기부 문화 강화 등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정책 중 ‘대학 재정/회계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 규제개혁 건의 현황

“대학 재정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증대”

등록금, 세금면제, 장학금



➔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메커니즘 적용 필요

Contents

- I. 글로벌 메가 트렌드 및 미래 대학
- II. 한국 고등교육의 현주소
- III. 정부 제안 사항**



Rafael Reif
[MIT대학 총장]

EDUCATION

MIT's President: Better, More Affordable Colleges Start Online

How digital learning can become a part of every campus

By L. Rafael Reif, President of MIT | Sept. 26, 2013 | 5 Comments

Everyone would like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rising college costs. While students worry that they cannot afford a college education,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know they cannot really afford to educate them either. At a technology-intensive research university like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it now costs three times as much to educate an undergraduate as we receive in net tuition—that is, the tuition MIT receives after providing for financial aid. To push the research frontier and educate innovators in science and engineering demands costly instrumentation and unique facilities. Even for institutions with substantial endowments, subsidizing a deficit driven by these and other costs is, in the long run, unsustainable.



“... MIT와같은 최첨단 연구중심대학도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용이 등록금의 3배 이다... 이러한 구조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없다(Unsustainable).”

1

사립대학 vs. 국공립대학 역할 재정립

- 사립대학 : 등록금 책정 등 재정운영 자율권 부여, 기여입학제 허용, 입학정원 제한 폐지 등
- 국공립대학 : 정부재정지원 강화 (순수/기초학문 투자 강화)

2

사립대학 수익사업 활성화 지원책 마련

- 대학 적립금의 목적 제한 폐지 : 교육의 재투자를 위한 수익사업 투자 허용
- 수익사업 가능 업종 확대 및 인력/공간 활용 허용

3

대학평가시스템 개선

- 보여주기용 정량평가 시스템 및 서열화 탈피
(교육부 구조개혁 평가, 중앙일보 평가, QS평가)
- 대학의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 마련
(학문분야별 특성 고려, 교육중심대학 vs. 연구중심대학 분리)



End of Document

한국 대학의 내부 여건

숙명여대 총장
황 선 혜

목 차

1. 강의에 대한 재고
2. 연구에 대한 재고
3. 전공에 대한 재고
4. M.스쿨

1. 강의에 대한 재고

- **배움의 발전단계**

암기 → 이해 → 적용 → 융합

대학 강의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

아직도 암기와 이해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와 적용이 없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융합’ 을 추구하지 않는지?

- **지난 10년간 대학의 교수법 혁신**

대외평가를 염두에 둔 준비안 된 방법론적 혁신

사이버강의, PBL(problem-based learning) 강의, BL(blended learning) 강의, OCW(open courseware) 등등...

교재와 강의자료에만 국한된 바뀌지 않는 강의내용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다시 강의의 본질을 고민한다

강의의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연구에 대한 재고

- **논문 쓰느라 연구할 시간이 없다?**

논문실적에 대한 양적 평가의 양면적 성격
연구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의 위생요인

- **교육과 연구는 대체 가능한 것인가?**

연구실적은 뛰어난데 강의 역량은 그에 미치지 못 하는 불균형 문제

- **연구비 쏠림 현상**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IBS

선도적 연구가 아닌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는 연구

3. 전공에 대한 재고

- **구조조정을 둘러싼 입장 대립**

입장1: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학과 구조조정

사회적 수요는 변화하지 않는가?

사회적 수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없는가?

기본기가 탄탄한 인재양성이 중요

입장2: 기초학문과 인문학에 대한 위기론

대학 진학률 70%의 현실

대졸 고급인력과 사회적 수요 간의 미스매치

학과의 틀을 벗어난 기초학문/인문학의 가치

4. M.스쿨

Minerva Schools at KGI(Keck Grad. Inst.)

모토: Sapientia Critica(Critical Thinking)

설립: 2012년 벤 넬슨(벤처기업가)이 설립

학부생: 28명 (14개국)

위치: San Francisco, California, U.S.

- 2012년 벤 넬슨이 대학 재학 중 기존 시스템의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설립에 이룸.
- 온라인으로 세미나 토론 중심의 소규모 수업 진행
- 강의실 없이 지역의 도서관과 기존의 건물을 활용
- 문리대학(사회,자연과학,수리과학,인문,미술) 및 경영대학(인가 절차중)
- 2012~2014년, 2500만 달러+7000만 달러 투자 수혜

제1회 서울총장포럼 - 25th March, 2015

대외 환경 변화와 한국 대학의 대응

서강대학교 유기풍 총장

01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



Do More for Less!!!

02 Risk Factor

- 학령인구 감소 + 재정압박
- IT 기반 교육 확대(MOOC 등)
- 해외 명문대학 국내 진출(고등교육시장 개방)
- 중국의 부상(외국인 유학생 감소/국내학생 유출)
Ex) 명문대 중국 Campus : Nottingham Univ(6,000명), NYU 등

03 한국대학의 대응 사례 : MOOC

edx? Coursera? Futurelearn? K-MOOC? etc

Trend or Fad? Good or Bad?

- MOOC 확대 → 국내 대학의 교육, 재정적 근본적 변혁
 - ⇒ Contents Provider 대학은 소수 명문대학?
 - ⇒ Contents Consumer 대학은 오히려 재정 압박에 직면?
- International MOOC 시장에 대한 언어장벽
 - ⇒ 국내 MOOC와의 decoupling 가능성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데 대학생에게 인성교육? 그럼 대학의 교육 방향?

-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프로그램
Ex) 서강대 : '성찰과 성장'을 중핵필수 교과로 신규 편성
- 지식인(교육받은 사람)의 사회적 책임 의식 함양
 - ➡ 가치관(철학) 정립 : 인생관, 세계관, 직업관, 국가관 등
 - ➡ 강의실 內 : 교양, 인문소양 등
 - ➡ 강의실 外 : 다양한 비교과 활동(사회봉사 등)



05 한국대학의 대응 사례 : 산업체 맞춤형 교육

교육은 *百年之大計*인데.....

대학의 본질에 대한 질문?

- **短** 짧은 기술 수명 & A/S 필요 ↔ 학문 다양성, 문화 **長**
- **短** 기업은 단기적 성과 요구 ↔ 국가는 장기적 안목 **長**

상충관계(Trade-off)를 어떻게?

대학의 가치 훼손을 방지 + 균형과 조화 필요





Thank You